

辰韓 不斯國의 형성과 변천*

민경택**

국문초록

이 글은 진한 소국이었던 不斯國이 가야의 일국인 非火加耶로 변천할 수 있었던 과정을 고찰한다. 불사국은 『三國史記』의 比只國과 동일한 정치체로, 창녕 남부의 영산-계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3세기 중반 崎離營 전투는 불사국이 진한에서 이탈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三國史記』 사로국의 대외복속전쟁의 양상과 조응한다. 불사국은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이속되는 진한 8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교역체계를 유지한다. 진한 8국의 이탈은 浦上八國戰爭의 배경이었으며, 불사국은 안야국을 지원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후 가야의 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불사국의 사례는 진한-신라, 변한-가야라는 기존 도식적인 해석의 한계를 담고 있다. 즉, 불사국이 진한의 범주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가야의 길을 택한 사례는 삼한 78개 소국 모두를 도식화하여 이해하려는 시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글이 창녕 지역 정치체의 독자적 위상을 복원하고, 삼한에서 삼국으로 이행하는 여러 소국의 다층적인 면모를 고찰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희망한다.

* 이 논문은 민경택, 「辰韓 不斯國의 형성과 변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한국사 전공)

주제어: 진한, 불사국, 비지국, 비사벌, 비화기야, 가야, 기리영전투, 포상팔국전쟁

1. 머리말

不斯國은 삼한시기 辰韓 12국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였다. 불사국이라는 국명은 『三國志』에 등장한다. 3세기 후반 西晉의 陳壽가 편찬한 『삼국지』는 당대 한반도의 정치체를 馬韓·辰韓·弁韓의 三韓으로 기록하고 있다.

불사국은 『三國史記』의 比只國, 『新羅眞興王拓境碑』의 比子伐, 『日本書紀』의 比自婁과 음상사를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국가가 존재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창녕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三國遺事』에서 전하는 非火伽耶의 前身이자 가야사의 前期小國으로 이해된다.

가야 중심의 독자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 후대의 사서에 등장하는 기사를 통하여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기사들은 각기 신라, 일본을 주체로 서술되어 있어 가야는 객체의 지위를 지닌 채 피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거나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그 위에서 진행된 가야사 연구마저 대가야·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 단계에 머물렀다는 이해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부족한 문헌에 고고자료가 확충됨으로써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야의 전기로 여겨지는 변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弁辰走漕馬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安邪國, 弁辰古資彌凍國 등에 대한 논고가 발표되었다.¹⁾

1) 백승욱, 「居昌 ‘居烈國’의 형성과 변천」,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李永植, 「고대 한일교섭의 가교, 거제도 - 가야 瀆盧國과 신라의 婁郡」, 『동아시아古代學』 2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안홍좌, 「弁辰走漕馬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38호, 부경역사연구소, 2016; 심봉근, 「경남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 古資彌凍國 胎動」, 『文物研究』 29, 동아시아문화물연구학회, 20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삼한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 계기적 발전양상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삼한 중 馬韓의 伯濟國, 辰韓의 斯盧國은 각기 百濟·新羅, 弁韓諸國 중의 狗邪國이 金官國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고대 국가의 보편적인 변천 양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불사국은 진한 소속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아닌 가야의 일국인 비화가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변한이 지니고 있던 중족 계통의 혈연적 요소 약화²⁾, 신라와의 먼 거리³⁾, 사로국 중심의 진한 통합운동에서의 이탈⁴⁾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삼한 사회의 변동과 그 속에서 불사국이 지니고 있었던 역량을 바탕으로 가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창녕 지역의 삼한시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고고 자료의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창녕 지역에는 유리 지석묘, 죽사리 지석묘, 사창리 유적 등 청동기시대 유적이 곳곳에 산포하고 있다. 또한 창녕 초곡리 소장미 고분군⁵⁾에서 삼한시기 고고자료가 확인됨으로써 삼한시기 정치체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문헌의 재해석과 고고자료의 활용을 통해 진한의 소국이었던 불사국이 신라에 속하지 않고 가야의 한 나라인 비화가야가 된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
- 16; 선석열, 「고대의 양산과 변진집도국」, 『지역과 역사』 48호, 부경역사연구소, 2021;
 - 1; 박선영, 「彌離彌凍國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2) 백승욱, 「比斯伐의 공간과 역사적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101, 한국고대학회, 2021, 47-48쪽.
 - 3) 남재우, 「기록으로 본 고대 창녕 지역의 정치적 위상」, 『石堂論叢』 5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254쪽.
 - 4) 朱甫噉, 「文獻上으로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25쪽.
 - 5) 한국문화재단,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2017.

2. 불사국의 형성

2.1. 불사국의 위치비정

불사국은 『三國志』동이전에 기록된 진·변한 24개 소국 중 하나로 등장한다.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 앞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不斯國’이라는 명칭이 사료를 통틀어 오직 이 대목에서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지』한전에 나타난 진·변한 24국의 전반적인 등장 양상과 서술 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삼국지』동이전에 기록된 정보는 대부분 경초 연간(237~239) 이후부터 정시 연간(240~249) 사이에 획득한 것으로 파악된다.⁶⁾ 이에 불사국을 포함한 24개의 소국은 3세기 중반 무렵, 이미 독자적인 정치체로서 그 실체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진·변한 국가들의 위치는 후대의 지명과 음상사를 비교한 뒤, 삼한시기 고고자료의 양상에 따라 구체적인 비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으나, 그 유효성은 인정된다.⁷⁾ 다음은 진·변한 24국의 국명과 불사국이 확인되는 사료이다.

A) 已抵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漚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漚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虛國·斯虛國·優由國이 있어, 弁韓과 辰韓의 합계가 24국이나 된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사료 A는 진·변한 24국의 국명을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명에 弁辰이 포함된 12국은 변한의 일국이며, 이외의 12국은 진한의 소국으로 이

6) 남혜민, 「변한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안아국」,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79쪽.

7) 백승욱, 앞의 논문, 2021, 44쪽.

해된다.⁸⁾ 국명의 나열 순서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기재방식에 따른 것으로, 이민족의 사정을 기술하는 중국 사서의 보편적인 기재방식을 따랐을 것이다.⁹⁾ 다만 韓의 기술에서 나열되는 국가들의 지리적 비정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하나의 교통로를 따라 모든 국가들이 연이어 기술되었기보다는 일정한 그룹을 이루어 인접한 국가들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불사국은 已柢國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하며, 뒤이어 弁辰彌離彌凍國이 등장한다. 이는 이저국-불사국-변진미리미동국이 특정 교통로를 따라 연결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예컨대, 변진안야국(함안)에서 변진주조마국(창원)을 지나 변진구야국(김해)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교통로나 변진독로국(부산 또는 거제)에서 사로국(경주)을 지나 우유국(울진 또는 영덕)으로 이어지는 남·동해안 교통로가 추정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이저국과 변진미리미동국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넓은 범주에서 불사국의 위치를 가늠해보겠다. 已柢國은 안동, 영주 풍기와 청도로 비정되었다. 이병도는 已柢國을 안동의 古號인 古陀耶(吉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²⁾ 천관우는 국명의 나열순서 상 已柢·不斯·彌離彌凍·接塗를 제 1群으로 묶고, 경상도 서북부에서 이들의 위치를 찾고자 하였다.¹³⁾ 그중 已柢國은 『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基木鎭이 基와 己의 음, 木과 柢의 뜻이 비슷하며, 이를 伊伐支縣으로 짐작하여 영주 풍기로 비정하였다.¹⁴⁾

진진국은 伊伐支縣의 ‘伐支’는 지명형태소로 볼 수 있는 반면, 已柢國의 ‘柢’는 지명형태소로 보기 어려우며, 伊西國과는 已와 伊, 柢와 西의 음상

8) 국명의 총합은 26개국이나 軍彌國과 馬延國이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두 국가를 제외하여 24개국으로 본다. (金廷鶴, 1983,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호, 한국사학회, 25쪽.)

9) 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 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호, 부경역사연구소, 2019, 20-22쪽.

10) 千寬宇, 「辰·弁韓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호, 백산학회, 1976, 223-225쪽.

11) 尹善泰, 「馬韓의 辰과 신분고국」, 『백제연구』 34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8쪽; 남혜민, 위의 책, 2020, 82쪽.

1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274쪽.

13)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254쪽.

14)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257쪽.

사가 더욱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저국을 청도에 비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¹⁵⁾

이저국은 청도 지역의 이서국에 비정하는 견해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청도 지역은 현재까지 삼한 시기의 중심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伊西國, 伊西古國에 관한 사료가 髙禮王, 味鄒尼師今 등 상고기를 중심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삼한 소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弁辰彌離彌凍國은 예천 용궁과 밀양으로 비정되었다. 천관우는 위와 같이 낙동강 상류 방면(제 1群)에서 변진미리미동국을 비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龍’의 古號가 ‘彌離’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예천 용궁을 상정하였으며, 상주 함창 일대도 포함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⁶⁾ 이병도는 밀양의 고지명인 ‘推火’와 관련시켜 ‘彌離’-‘推(밀)’-‘密’은 龍의 방언인 ‘밀’·‘미리’를 나타내며, 彌凍은 ‘물동’의 음역으로 보고 현재의 밀양 지역으로 비정하였다.¹⁷⁾

‘龍宮’의 지명은 고려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竺山’, ‘園山’ 등으로 불리었다.¹⁸⁾ 따라서 예천 용궁보다는 지명학적 연원이 확인되는 밀양 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밀양 지역에는 교동 유적, 춘화리 유적, 사포리 유적 등지에서 삼한시기 목관묘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삼한 소국이 존재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저국과 변진미리미동국을 각기 청도와 밀양에 비정한다면, 불사국은 두 지역을 잇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不斯國’이 西晉人 陳壽의 표기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국내의 고대 지명 표기 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사국의 위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사국의 위치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표 1>과 같다.

15) 전진국, 「진변한 24국의 위치비정」, 『한국상고사학보』 118, 한국상고사학회, 2022, 72쪽.

16)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259쪽.

17) 李丙燾, 앞의 책, 1985, 274쪽.

1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慶尙道 龍宮縣.

〈표 1〉 不斯國에 대한 위치 비정

연구자	위치 비정	비정 이유
今西龍	창녕	음상사로 보아 비자별은 『三國志』의 불사국과 동일
鮎貝房之進	창녕	比斯, 比自는 ‘빛(光明)’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국명, 不斯國도 유사한 활용
이병도	창녕	‘比斯伐’, ‘比自火’ 등과 不斯國은 동일한 국가
천관우	안동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등장하는 안동의 고지명 ‘昌寧’이 不斯國
백승옥	창녕	‘不’과 ‘比’는 서로 통하며, ‘斯’와 ‘只’는 사이 ‘ㅅ’ 같은 역할을 함. 따라서 比斯伐, 比子伐 등의 국명과 동일
전진국	상주?	‘不’과 ‘比’는 애초에 다른 발음의 글자이며,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夫斯’나 ‘불사’를 ‘빠’로 이해하여 沙伐國이 위치한 상주 지역으로 잠정 비정.

不斯國에 대한 최초의 위치 비정은 일본인 학자 今西龍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新羅眞興王拓境碑」를 고찰하는 논고에서 음상사로 보아 창녕의 비자별은 『삼국지』의 불사국과 동일하다고 추기하였다.¹⁹⁾ 이후 ‘不斯’와 ‘比斯’의 음상사에 주목하여 불사국을 창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이어졌다.

반면, 안동이나 상주에 비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천관우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설정한 ‘第 1群’에서 이격된 창녕 지역에 불사국을 비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대신 『東國輿地勝覽』에 등장하는 안동의 고지명 昌寧이 실은 非斯伐-不斯國이었을 것 추정하고, 이들이 현재의 창녕 지역으로 이동하여 비화 가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²⁰⁾

위의 견해는 非斯=不斯의 음상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녕의 比斯伐로 비정하는 여타 견해들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러나 안동에서 창녕으로 이동하였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안동 지역의 정치체는 삼한 시기 이래 古陀耶, 古陀郡 등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세력이 안동에서 창녕으로 이동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진국은 ‘不’과 ‘比’의 발음이 똑같이 재구음되는 경우가 없으며, 에

19) 今西龍(橋本繁 역),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3)」, 『신라사학보』 5, 신라사학회, 2005. 236쪽.

20) 千寬宇, 앞의 논문, 1976, 254-256쪽.

초에 다른 발음의 글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사’ 또는 ‘불’을 하나의 지명 형태소로 보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夫沙’와 짝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²¹⁾ 나아가 불사국을 1~3세기 물질문화의 공백을 지닌 창녕으로 비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불사’를 ‘빠’의 표기로 이해하여 沙伐國이 위치한 상주 지역으로 잠정 비정하였다.²²⁾

이는 不와 比가 똑같이 재구음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서인 『三國志』와 국내의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표기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음성 정보라도 서로 다르게 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不과 比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不斯’와 ‘比斯’를 공통된 지명형태소를 공유하는 음운상의 변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창녕 지역 1~3세기 물질문화의 공백에 대한 지적은 삼한시기 소국을 상징하는 데에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초곡리 소장미 고분군²³⁾의 2호·5호 목곽묘에서 확인된 대부호, 양이부호, 철모, 유·무경식 철촉 등은 3세기 중반경으로 편년된다. 이로 보아 『三國志』의 진·변한 소국이 채록된 시기에 창녕 지역의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不斯’와 ‘比斯’의 음상사를 논하여 창녕의 比斯伐에 비정하는 견해가 여전히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국명의 나열순서상 이서국(청도)-불사국(창녕)-변진미리미동국(밀양)으로 이어지는 연속성도 드러나게 된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의 시계열적 검토를 통해 불사국과 비사벌의 관계성을 파악해보겠다.

B-1) 29년 여름 5월 병사를 보내어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을 竝하였다.(『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9年)

B-2) 봄 3월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 함께 탁순국에 모

21) 전진국, 「고대 창녕 지역의 소국 설정」, 『한국고대사연구』 101, 한국고대사학회, 2021, 13-19쪽.

22) 전진국, 앞의 논문, 2022, 72-73쪽.

23) 한국문화재단, 위의 보고서, 2017.

여 신라를 격파하고, 比自林·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日本書紀』卷9 氣長足姬尊 神功皇后 49年)

B-3) 火王郡은 본래 比自火郡(또는 比斯伐이라고도 한다.)인데, 眞興王 16년(555)에 주를 두고 下州로 이름하였다. 眞興王 26년(565) 주를 폐지하였다. 景德王에 이름을 바꾸어 현재 昌寧郡이다.(『三國史記』卷34 雜志 第3 地理 火王郡)

B-4) 本朝의 《史略》에 이르기를 “태조 天福 5년 庚子에 5가야의 이름을 고치니 1은 金官[金海府가 되었다.]이요, 2는 古寧[加利縣이 되었다.]이요, 3은 非火[지금의 昌寧이란 것은 아마도 高靈의 잘못인 것 같다.]요, 나머지 둘은 [阿羅와 星山 앞과 마찬가지로 성산은 벽진가야라고도 한다.]이다.”라고 하였다.(『三國遺事』卷 第1 紀異第一 五伽倻)

사료 B-1은 사로국의 대외복속기사로 比只國, 多伐國²⁴⁾, 草八國을 병합(竝)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比只國은 창녕 지역에 위치한 삼한시기 소국이며, 이들을 낙동강 중류의 소국群으로 이해한다.²⁵⁾ 사료 B-2는 神功紀 49년, 7국의 평정기사이다. 국명 중 比自林이 확인되며, 그 기년은 4세기 중반으로 가늠된다.²⁶⁾

사료 B-3은 창녕군의 연혁이며, 比自火=比斯伐, 火王郡, 昌寧郡으로 이어진다. 이로 보아 火=比自=比斯=比子=昌(빛날 창)이 분명하며, 그 의미가 비자·비사=빛(火·光·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사료 B-4는 『三國遺事』五伽倻條로, 고려 태조 시기 가야 명칭의 개편 과정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창녕 지역의 가야 세력으로 非火(伽倻)가 등장한다.

24) 多伐國은 대구로 비정되기도 하지만, 비지국과 초팔국이 각기 창녕과 합천 초계면에 비정된다는 점에서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多羅國이라 여겨진다. ‘伐’과 ‘羅’는 의미가 상통하며, 비지와 초팔의 중간에 위치하는 등 다라국을 지칭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田中俊明, 『復元多羅國史 文獻からみた多羅國』, 『다라국 그 위상과 역할』, 합천군·경상대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014, 22쪽.)

25) 파사이사금 29년은 기년을 긍정한다면 108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해당하는 해당 기사의 기년은 보다 후대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6) 『日本書紀』「神功紀」를 종래 2주갑(120년) 인하하는 견해를 따라 369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7) 都守熙, 『百濟語 研究』, 제이앤씨, 2005, 149쪽.

『삼국지』에 등장하는 不斯國(A)은 『삼국사기』에 比只國(B-1)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동일한 국명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특히 4세기 이후의 기록에서 比自焠(B-2), 比自火·比斯伐(B-3) 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不斯國(比只國)은 이들보다 앞선 3세기경 창녕 지역에 존립했던 진한 소국의 당대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

‘不斯’와 ‘比只=比斯=比子=比自’의 斯, 子, 自 등은 사이시옷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²⁸⁾, 그 음은 ‘비스/비사>빛(빛)’으로 발음되어 ‘빛/불’을 의미하는 지명어로 활용되었을 것이다.²⁹⁾ 이후에는 여기에 들판, 평야를 의미하는 焠·伐·火 등이 더해져 ‘빛밭’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창녕 지역 정치체는 삼한시기 不斯國(比只國)의 진한 소국 단계를 거쳐 4세기 이후에는 가야의 일국인 比自火·比斯伐로 확인된다. 나아가 나말여초에 이르러 ‘非火伽耶(B-4)’라는 인식이 주창되며, 창녕이 가야의 일국이었음이 다시금 인지된다.³⁰⁾

2.2. 불사국의 형성기반

삼한 각국이 등장하기 이전 청동기시대부터 정치권력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녕 지역에서 삼한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소략한 상황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양상과 분포는 불사국의 형성 배경을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창녕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청동기시대 유적을 살펴보고, 중심 권역을 상정해보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창녕은 영남지역 중남부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는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남쪽 방향으로 낙동강의 본류가 회곡한다. 동쪽으로 밀양·청도, 서쪽으로 고령·합천·의령, 남쪽으로 함안·창원이 있으며, 북쪽

28) 백승욱, 앞의 논문, 2021, 46쪽.

29) 천소영, 『한국지명어연구』, 이회문화사, 2003, 222-227쪽.

30) ‘몇가야’ 형태의 국명은 신라 말 고려 초의 혼란기에 반신라적인 관념이 생겨난 후 지역 호족들이 옛 가야의 전설을 되살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어졌을 것이다.(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57쪽.) 비화가야 또한 과거 비사벌(빛벌)의 전설과 관련되어 명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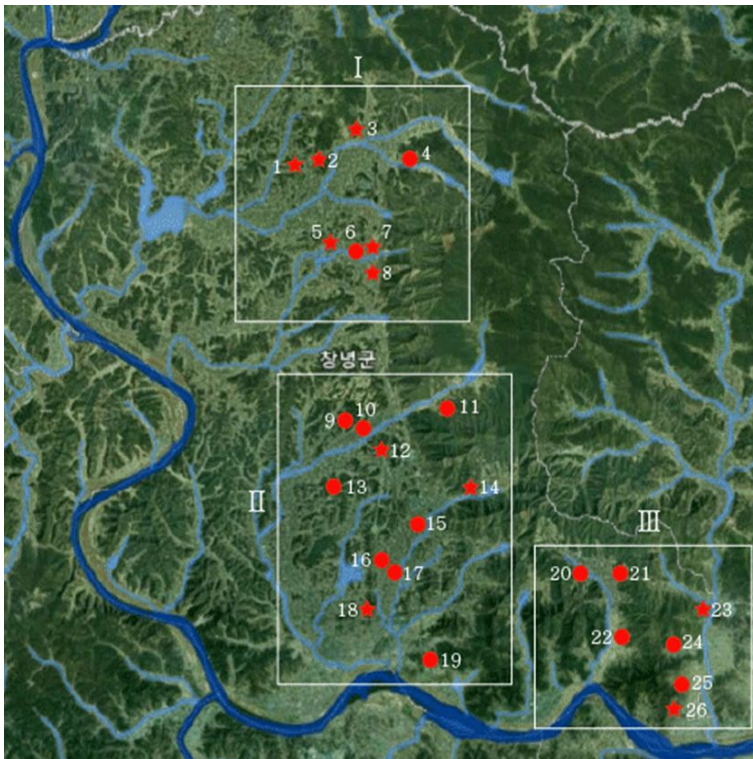
으로 대구와 연결된다. 전체적인 지형으로 볼 때 東高西低의 지형이라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표 2>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³¹⁾

<표 2> 창녕 지역 청동기시대 유물·유적

권역	연번	소재읍·면 및 유적명	유구종류	조사방법	비고
I	1	대합면 모전리 유적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2	고암면 원촌리 유물산포지 I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3	고암면 원촌리 유물산포지 II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4	고암면 중대리 지석묘	지석묘1	지표조사	
	5	창녕읍 교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6	창녕읍 송현동 만옥정 지석묘군	지석묘3	지표조사	
	7	창녕읍 송현동 선사유적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상석 산포
	8	창녕읍 말흘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II	9	계성면 계성리 석관묘	석관묘1	지표조사	
	10	계성면 신제제실 내 지석묘군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추정 대석 산포
	11	계성면 사리 지석묘	지석묘1	지표조사	
	12	장마면 초곡리 유적	수혈건물지	발굴조사	무문토기편 석부, 석검 출토
	13	장마면 유리 지석묘	지석묘1	발굴조사	
	14	영산면 구계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편인석부 출토
	15	영산면 죽사리 지석묘군	지석묘3	지표조사	7~8기 중 3기만 유존
	16	영산면 신제리 지석묘군	지석묘1	지표조사	
	17	도천면 도천리 지석묘군	지석묘2	지표조사	4기 중 2기만 유존

31) <표 2>와 <그림 1>의 작성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경남문화총서1, 2010; 경상문화재연구원,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경상문화재연구원, 『창녕 영산면 구계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 사창리 유적』, 2009; 『창녕 힐마루 골프장 예정부지 내 昌寧 草谷里 遺蹟』, 2010; 『창녕 비봉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구간 내 昌寧 水多里 貝塚』, 2012; 창원대학교박물관,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633번지 일원 창고신축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2011; 昌寧郡·東亞文化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 -昌寧郡-』, 2005.

	18	영산면 월령리 선사유적	복합유적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19	도천면 우강리 고분군	석관묘3	발굴조사	
	20	부곡면 사창리 유적	석관묘26	발굴조사	석기 47점 출토
	21	부곡면 부곡리 가갯골 지석묘군	지석묘2	지표조사	
	22	부곡면 청암리 지석묘군	지석묘4~5	지표조사	무문토기, 마제석검 출토
Ⅲ	23	부곡면 수다리 패총	복합유적	표본조사	추정 수혈주거지 확인
	24	부곡면 비봉리 지석묘군	지석묘3	지표조사	지석묘 추정 대석 산포
	25	부곡면 추정 구산리 지석묘군	지석묘5	지표조사	
	26	부곡면 학포리 신평마을 유물 산포지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무문토기편 출토



〈그림 1〉 창녕 지역 청동기시대 권역(●: 지석묘 ★:유물산포지)

I 권역은 고암면, 대합면, 창녕읍에 해당한다. 열왕산과 화왕산에서 발원하는 토평천과 창녕천을 따라 유적이 조성되어 있다. 지식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은 창녕읍 송현동이다. 이 권역은 육로를 따라 현풍·청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낙동강을 통해 합천 초계·쌍책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I 권역은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에 해당한다. 화왕산에서 발원하는 계성천과 영취산에서 발원하는 영산천 유역을 따라 유적이 조성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에 초대형 상석을 동반한 유리지석묘는 계성천·영산천을 포함하여 도천천 인근까지도 조망할 수 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이들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권역은 중암산에서 발원하는 온정천과 청도천 하류역이다. 길곡면, 부곡면이 해당되며, 석천산, 비라산 등의 산지에 둘러싸여 있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의령, 함안, 칠원, 창원과 마주하고 있으며, 육로는 밀양과의 경계에 해당하는 점이지대로 볼 수 있다.

창녕 지역은 위의 세 권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II 권역이 타 권역보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00톤 규모의 유리 지석묘 상석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창원 덕천리 지석묘 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거석 상징물은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의례와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덕천리 지석묘의 경우 蘇塗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天君과 관련된 제의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하며³²⁾, 구산동 지석묘³³⁾에서는 하부구조로 목관묘가 채용되고, 粘土帶土器가 공반되는 등 초기철기시대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 지석묘는 창녕 지역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며, 이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단편적이지만 동일한 권역에 소재한 도천리 도천유적에서 무문토기와 함께 圓形粘土帶土器 口緣部 편이

32) 이동희, 「고 대산반 지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호남고고학보』 72집, 호남고고학회, 2021, 51쪽.

33) 삼강문화재연구원, 『金海 龜山洞 支石墓 -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2023.

확인되거나³⁴⁾ 일리 생활유적³⁵⁾에서 목관묘 단계의 組合牛角形把手附壺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참고된다.

이와 함께 영산고분군과 동리고분군에서 목곽묘 단계의 유구가 점차 확인되는 등 창녕 권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이 II권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I 권역에 위치한 교동·송현동 고분군은 5세기 이후부터 활발히 조영되지만, 4세기대의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영산고분군과 동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日本書紀』에서 확인되는 ‘比自煉’의 실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초기의 중심지는 II권역이었다. 창녕의 남부와 북부를 별개의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백년 이상 토기와 철제품, 금공품 등의 양식이 동일하기에 다른 국으로 비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³⁶⁾ 따라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사회와 4세기 이후 비사벌 성립의 사이, 즉, 불사국도 II권역을 중심으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불사국의 형성

『三國志』의 진·변한 기록은 이전 시기부터 누적된 한반도 남부 정치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불사국의 형성과 관련된 다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사국의 형성은 진·변한 소국 형성의 총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삼한 각국은 선진 문화를 지닌 유이민과 재지세력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다. 고고학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철기의 부장과 목관묘의 군집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BC 2세기 전후로 파악된다.³⁷⁾ 다음의 사료를 통해 진·변한 國의 형성은 북방계 유이민과 재지세

34) 鄭澄元·洪潛植, 「昌寧郡의 새로 찾은 生活遺蹟」, 『역사와 세계』 19집, 부산대사학회, 1995, 12-18쪽.

35) 창녕박물관, 『창녕을 다시 만나다』, 창녕박물관 재개관 전시도록, 2018, 29쪽.

36) 박천수, 「고고학으로 본 비화가야사의 새로운 접근」,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창녕 영산고분군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2019, 469쪽.

력의 결합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C-1)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辰韓) 노인들은 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옛날의 망명인으로 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韓이 그들의 동쪽 변경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C-2) 侯 準이 주제님께 왕을 일컫다가 燕의 亡人 衛滿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겨 좌우의 궁인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가 韓地에 거주하며, 스스로를 韓王이라 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C-3) 앞서 朝鮮의 유민이 산과 계곡에 사이에 나누어 살고 있어 6촌이라 하였는데, … 高墟村의 우두머리 蘇伐公이 楊山의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주변 숲 속에서 말이 꿇어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곧 달려가 보니 말은 홀연히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곧 거두어 길렀다. 십여 년이 지나니 岐嶷하고 夙成하였다. 六部의 사람들은 출생이 神異하다하여 떠받들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왕으로 세웠다.(『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자료 C-1~3은 朝鮮의 망명인들의 집단적 남하가 일어났으며, 이들이 재지세력과 결합하여 사로국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準王의 남하는 韓과 연결되며, 韓族 사회가 三韓으로 분화되는 시점은 衛滿朝鮮系 집단의 남하를 결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다.³⁸⁾ 특히 사로국의 형성과 관련하여 辰國, 秦의 유망민, 고조선 유민 등 여러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진한의 형성 기반으로 다양한 내력을 지닌 집단들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³⁹⁾

삼한 각국이 형성되던 시기 영남지역에 유입되는 선진 문화의 전파 경

37) 목관묘·목곽묘의 군집화 현상은 같은 지점(村)에서 묘제의 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취락이 고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원전 2세기에 주목하여 진·변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李熙濬,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 26호, 영남고고학회, 2000, 98-99쪽.)

38) 남재우, 『安羅國史』, 혜안, 2003, 50쪽.

39) 이현혜, 『마한·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2022, 121-122쪽.

로는 크게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영남지역으로 도달하게 되는 내륙 교통로와 남서해안의 島嶼를 거쳐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수로로 대별될 수 있다. 내륙 교통로의 경우 추풍령(또는 化寧)을 넘어 상주 → 낙동강 상·중류 → 대구 → 경주로 이어지거나⁴⁰⁾ 대구·경산을 기점으로 남진하여 → 밀양 → 창원으로 이어지고 있다.⁴¹⁾

수로 교통로는 연안항해법을 통해 남서해안을 따라 이동하여 사천 늑도를 경유하여 낙동강 하구의 김해까지 연결된다.⁴²⁾ 내륙 교통로와 해로를 통해 유입되는 문물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파되며, 영남지역의 유사한 문화상을 조성할 수 있었다.

선진 문화의 전파 경로에 따라 출토되는 위세품의 부장양상 및 시기는 국가의 형성시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창녕 지역에서 불사국의 형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문헌을 통해 면밀히 관련 맺고 있는 소국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已祗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A)으로 이어지는 국명의 나열 순서에 일정한 교통로가 반영되어 국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상징할 수 있다면, 그 국들이 위치한 청도와 밀양 지역이 주목된다. 또한 불사국(비지국)과 함께 등장하는 다벌국, 초팔국(B-1)도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 변진미리미동국(밀양)과 다벌국(합천)의 형성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밀양 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으로는 교동 유적, 춘화리 유적, 제대리 유적, 전사포리 유적, 내이동 밀성고 부지 유적 등이 있다. 특히 22기의 목관묘와 전한경, 한국식 동검이 출토된 교동 유적이 가장 우세한 정치집

40) 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2016, 26-27쪽.

41) 기원전 1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星雲文鏡은 평양 정백동 3호, 경산 임당 E-58호, 밀양 교동, 다호리 1호묘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김효정, 「창원 다호리의 청동기와 세형동검문화」,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금속기』 2021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2022, 89쪽.)

42)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島嶼文化』 3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12-13쪽.

단으로, 삼한시기 소국의 중심 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흑색마연장경호, 점토대구연옹 등의 공반 유물은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⁴³⁾

합천 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으로는 합천 저포리, 영창리, 성산리 332번지 등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성산리 332번지 유적은 옥전고분군과 불과 2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여 1~2세기 전엽대의 전기와질토기·원삼국시대 목관묘 15기와 2세기 후엽~3세기 전엽대의 목곽묘 24기가 조사되어 삼한 소국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⁴⁴⁾ 특히 2호, 6호 목관묘에서 확인된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과수부호, 단경호는 1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⁴⁵⁾

변진미리미동국과 다벌국의 형성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부터 기원후 1세기 중반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불사국이 이들과 함께 사서에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사국의 성립 시기 또한 밀양의 변진미리미동국, 합천의 다벌국과 큰 시간적 괴리를 지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불사국의 성장과 변천

3.1. 불사국의 성장

不斯國은 이후 삼국시대 比斯伐로 이어져 강력한 세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는 불사국이 지니고 있던 대외교섭의 역량과 더불어 자체적인 성장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진·변한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사회적 변동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불사국의 성장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진·변한 경제적 기반을 말해준다.

43) 박선영, 위의 논문, 2022, 39쪽.

44) 류창환, 「고고학으로 본 황강유역권 가야」,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Ⅳ -각국사-』, 진인진, 2024, 476쪽.

45) 한국문화재단,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I -경남 3-』, 2017, 394쪽.

D-1)토지는 비옥하여 五穀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縑布를 만들었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D-2)나라에서는 鐵이 생산되는데, 韓·濊·倭인들이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鐵로 이루어져서 마치 中國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두 郡에도 공급하였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자료 D-1~2는 오곡과 벼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縑布의 제작이 진·변한 사회의 핵심적 기반이었으며, 교역에는 철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창녕 지역은 낙동강의 중하류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낙동강 수계를 따라 평야와 소택지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과 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新羅眞興王拓境碑」에서 보이는 ‘白田’, ‘沓’, ‘河川’ 등은 창녕 지역의 수전 농업과 관련시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⁴⁶⁾ 특히 영산 고분군과 계성 고분군에서 출토된 살포와 鐵鋤는 새로운 땅을 개간하기보다는 기존 농경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도구로 여겨진다는 점⁴⁷⁾에서 밭농사와 수전 농업은 고종고분 조영 이전 시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불사국은 인근 지역의 삼한 소국과 교역을 진행하며, 대외교역의 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초기 진·변한 대외교역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E-1)王莽 地皇時(20~23)에 廉斯鑑가 辰韓의 右渠帥가 되어 樂浪의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하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작정하였다. … 含資縣에서 郡에 연락을 하자, 군은 치를 통역으로 삼아 桴中으로부터 큰 배를 타고 辰韓에 들어가서 호래 등을 맞이하여 데려갔다. 함께 항복한 무리 천여 명을 얻었는데, 다른 5백 명은 벌써 죽은 뒤였다. 鑑가 이때 진한에게 따지기를, “너희는 5백 명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46) 남재우, 위의 논문, 2012, 250쪽.

47) 장승혜, 「삼국시대 창녕 지역의 철제농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94쪽.

지 않으면 낙랑이 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진한은 “5백 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겠습니다.” 하고는, 진한 사람 만 5천명과 弁韓布 만 5천 필을 내어놓았다. 鑿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곧바로 돌아갔다. 군에서는 치의 공과 의를 표창하고, 冠幘과 田宅을 주었다. 그의 자손은 여러 대를 지나 安帝 延光 4년(125년)에 이르러서는 그로 인하여 賦役을 면제받았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所引 魏略)

E-2)建武 20년(44)에 韓의 廉斯人 蘇馬謨 등이 樂浪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光武帝는 蘇馬謨를 봉하여 한의 廉斯邑君으로 삼아 樂浪郡에 소속시키고 철마다 朝謁하도록 하였다.(『後漢書』東夷列傳 韓)

사료 E-1~2는 진·변한의 가장 이른 시기의 대외교류 기사이며, 辰韓 右渠帥인 廉斯鑿가 삼한 사회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樂浪에 귀부한 이후 지속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辰韓인과 弁韓布의 존재를 통해 진·변한의 소국들이 늦어도 기원후 1세기에는 연맹체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廉斯國의 실력자는 2세기 중반 전후까지 廉斯邑君이라는 호칭을 부여 받았으며, 진·변한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 漢郡縣과의 교역은 종래 활발히 활용되었던 내륙 교통로보다 수로 교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⁴⁹⁾ 불사국에 있어서도 수로 교역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을 것이며, 낙동강의 수계는 교역에 활발히 활용되었을 것이다.

F)大川이 셋이니, 첫째가 洛東江이다. (중략) 善山에서 餘次尼津, 仁同에서 漆津, 星州에서 東安津, 加利縣에서 茂溪津이 되고, 草溪에 이르러 陝川의 南江 물과 합하여 甘勿倉津이 되고, 靈山에 이르러 또 涿州 南江의 물과 합하여 岐

48) 주보돈, 「진한에서 신라로」,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주요 유적 종합보고서Ⅲ, 2011, 639-640쪽.

49) 특히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삼한시기 漢式 유물이 前漢 시기에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반면, 後漢에 이르면 남해안과 김해 중심으로 분포한다.(이재현, 「진·변한출토 외래유물의 성격」, 『한국 출토 외래유물 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주요 유물 종합보고서, 2011, 1358-1368쪽.)

浦江이 되며, 漆原에서는 訶叱浦가, 昌原에서는 主勿淵津이 되어 金海에 이르고, 密陽 凝川을 지나 磊津이 되고, 梁山에서 伽倻津이 되고, 黃山江이 되어,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사료 F는 낙동강과 본류를 따라 형성되어 있던 浦와 津에 대한 기록이다. 창녕 지역에는 합천과 의령, 함안, 칠원과 마주하는 양안에 甘勿倉津, 岐晉江(伽倻津⁵⁰⁾), 訶叱浦 등이 형성되어 있었다. 수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나루터는 이전 시기부터 활발히 사용되었다.

감물창진은 황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되었으며, 합천 지역에 존재하였던 大라국, 초팔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로 교통의 요지였을 것이다. 또한 합천, 의령 등지에서 신라(경주)로 이어지는 옛 길이 있었다고 전한다.⁵¹⁾

기음강의 가야진은 6세기 신라가 가야를 정벌할 때 주요 출항지로 활용될 정도로 수로 교통의 요충지였다.⁵²⁾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의령·함안 지역으로 이어지거나 함안 대산면을 경유하여 안야국의 중심부로 직결된다.

우질포는 칠원의 漆浦國을 마주하며, 창원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청도천을 따라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용이한 지점에 자리 잡은 나루터이다. 나아가 낙동강 수계를 따라 영남 내륙과 황강, 남강 등지에서부터 유입된 물산이 古대산만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문이었다. 이처럼 낙동강을 활용한 수로는 불사국에게 진·변환을 넘나드는 교역 기반을 마련해주었을 것이다.

G-1) 桓帝·靈帝 末期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民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50)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靈山縣

51) 창녕군지편찬위원회, 『昌寧郡誌(하)』, 2003, 581쪽.

52)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56-57쪽.

G-2)建安 연간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敞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마침내 帶方에 복속되었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G-3)景初 연간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두 郡(帶方·樂浪)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韓國의 臣智에게 邑君의 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邑長을 주었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사료 G-1~3은 桓帝·靈帝(146~189) 末期부터 景初 연간(237~239)까지 삼한 사회를 둘러싼 급격한 변동을 전한다. 사료 G-1로 보아, 환제·영제 말기부터 韓의 세력은 강대해졌으며, 낙랑군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이에 建安(196~219) 연간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帶方郡을 설치하게 된다.(G-2) 또한 “倭와 韓은 마침내 대방에 복속되었다”(G-2)는 것으로 보아 대방군을 중심으로 삼한과 왜의 관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이는 2세기 후반 낙랑군의 황폐화로 인해 육상교통 중심의 교역로가 쇠퇴하고, 신설된 대방군의 수로를 통한 대외교역망이 활성화되었음을 시사한다.⁵⁴⁾ 즉, 後漢 이래 진·변한 소국들이 수로를 중심으로 교역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적인 對韓·濊·倭 정책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대외 교역망을 수로 중심으로 편재·운용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

사료 G-3에 따르면, 景初 연간(237~239) 낙랑군과 대방군을 재편하는 한편, 韓國 각국의 유력자들에게 邑君, 邑長 등 印綬를 더해 삼한 소국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는 『三國志』가 저술된 3세기 대의 삼한 사회의 모습과 상당 부분 연결될 것이다.

53) 『三國志』 倭人傳의 국명 나열 순서는 대방군을 시작으로 교통로 상의 소국을 배열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방군과 통교한 국명만을 열거하는 사례이다.(윤용구, 「3세기 안야국 이해의 몇 가지 문제」,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116쪽.) 즉, 삼한이 종래 통교하던 한사군의 주체가 낙랑군에서 대방군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54) 윤용구, 앞의 책, 2020, 123쪽.

H-1)辰王은 目支國을 통치한다. 臣智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臣雲遣支報 安邪馱支 漬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의 稱號를 더하기도 한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H-2)弁韓과 辰韓의 합계가 24國이나 된다. 大國은 4~5천家이고, 小國은 6~7백 가로, 총 4~5만 호이다. 그 중에서 12국은 辰王에게 속해 있다. 辰王은 항상 馬韓사람으로 王을 삼아 대대로 이어받았으며, 辰王이 자립하여 王이 되지는 못하였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사료 H-1~2는 삼한의 정치·사회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그 중 ‘臣雲遣支報 安邪馱支 漬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은 ‘국명+主帥의 칭호+인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⁵⁵⁾ 진·변한에서는 安邪國과 狗邪國이 대표된다. 진왕에게 속한 것(H-2)으로 표현되는 12국은 마한 지역을 통해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수상 교류를 활발히 수행한 국가였을 것이다. 또한 加優呼를 위시한 안야국과 구야국은 한사군과의 교역에서 우선권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⁶⁾

따라서 『三國志』에서 辰王을 삼한의 대표자로 상정하고 있더라도 진·변한의 소국에 있어 對한사군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안야국과 구야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辰王이 자립하여 王이 되지는 못하였다”(H-2)는 기사에 주목한다면, 안야국·구야국 또한 진·변한 소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加優呼를 칭하며, 세력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사국은 낙동강의 지류를 따라 형성되었던 포와 진을 중심으로 인근 소국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염사국에서 안야국·구야국으로 진·변한의 중심 세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사국의 대외관계 또한 변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기음강으로 곧장 이어지는 함안 안야국과의 관계성이 대두된다.

불사국은 농업과 검포의 제작을 바탕으로 낙동강 수계의 요충지인 감물창진, 기음강 등을 활용하여 유력 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2

5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278-279쪽.

56) 이용현,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2001, 342-345쪽.

세기 후반 이후 안야국·구야국 중심으로 교역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안야국과 면밀한 관계를 맺어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3.2. 불사국의 脫진한 과정

불사국은 진한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로 발전하였다. 이는 발전단계상 불사국이 지닌 특수한 성격으로 여겨진다. 삼한 사회는 마한·진한·변한이라는 거시적 틀로 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그 기저에 위치한 개별 소국의 독자적 성격이나 정치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삼국지』에 등장하는 진·변한 24국 중 변한이 가야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는 통념⁵⁷⁾은 현재까지도 보편적인 인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三國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馬韓에서 百濟가, 辰韓에서 新羅가, 弁韓에서 加耶가’라는 도식적인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伯濟國=百濟, 斯盧國=新羅, 狗倮國=加耶라는 등식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⁵⁸⁾ 이러한 계승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개별 소국이 지닌 있는 역량과 발전과정을 간과한 채 진한(변한)이라는 소속만으로 각 소국의 변천과정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불사국은 진한으로 인지되지만, 변한계 소국(弁辰彌離彌凍國)이나 가야의 일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소국(草八國, 多伐國)들과 함께 등장한다. 이와 함께 진한 소국들과의 관계성이 점차 느슨해지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를 불사국의 脫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3세기 초 대방군이 신설되고 한·예·왜의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안야국·구야국 등 변한 세력은 부각되는 반면, 내륙의 소국들은 주로 교역권에서 주변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진한 소국들은 북방군현으로 이어지는 육로 교통로의 확충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사로국의 阿達羅尼師今이 鷄立嶺과 竹嶺을 개척(開)한 것⁵⁹⁾은 쇠퇴한 육로 교통로를

57) 金廷鶴, 앞의 논문, 1983, 32쪽.

58) 남재우, 앞의 책, 2003, 19쪽.

다시금 확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갈등을 동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I) 部從事 吳林은 樂浪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 八國을 분할하여 樂浪에 넣으려 하였다. 그 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臣智와 韓人들이 모두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帶方]太守 弓遵과 樂浪太守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遵은 전사하였으나 二郡은 마침내 韓을 滅하였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사료 I는 部從事 吳林이 진한 8국을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이속하려 했지만, 臣智와 韓人들이 반발하여 崎離營을 공격한 사건(60)을 기록하고 있다. 이속의 배경으로는 한·왜와 이어지는 수로 교통로를 위주로 교섭함에 따라 두절되었을 육로지역으로의 통교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61)나 한족 사회의 분열을 노린 시도로 여겨진다.(62)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옮겨가는 8국이다. 3세기 중반, 진한 12국은 대부분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한 12국 중 8국만이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소속 옮긴다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은 진한 4국이 존재하며, 그들은 기존 대방군 중심의 대외교역을 이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국의 여건에 따라 변한의 교섭권에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63)

그렇다면, 낙랑군으로 이속되는 진한 8국은 기존의 교역 체계에서 두

59) 『三國史記』卷 第2 新羅本紀 第2 阿達羅尼師今 3年; 阿達羅尼師今 5年.

60) 기리영 전투의 시기는 正始 7년(246)으로 여겨지며(김남중, 『韓-曹魏 전쟁과 韓 사회의 재편』, 『한국고대사탐구』 37,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163-164쪽.), 공격을 주도한 세력은 臣濟沽國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한 국가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尹龍九,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85, 國史編纂委員會, 1999, 101-108쪽.)

61) 尹龍九, 앞의 논문, 1999, 117-118쪽.

62) 후보돈, 앞의 보고서, 2011, 643쪽.

63) 선석열, 「3세기 후반 辰韓 勢力圈의 變化」, 『加羅文化』13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6, 88-89쪽.

각을 드러내지 못한 진·변한 소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동정은 『三國史記』新羅本紀의 초기기록과 견주어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新羅本紀의 초기 기록은 尼師今의 비정상적으로 긴 재위 기간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시점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⁶⁴⁾

주목되는 것은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南新縣의 존재이다. 남신현은 주로 기이한 사건과 관련되고 있으며, 지리지에는 미상 지명으로 나타난다.⁶⁵⁾ 이와 함께 『뽇書』지리지에 대방군 7현 중 하나로 등장하지만, 『後漢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남신현이 설치되었던 시기는 晉代(265~317)로 볼 수 있다.⁶⁶⁾ 또한 등장하는 기간도 婆娑尼師今~奈解尼師今 시기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3세기 중반~4세기 초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 新羅本紀의 尼師今期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로국의 대외복속전쟁의 양상이 주목된다.⁶⁷⁾ 이를 통해 낙랑군으로 이속된 진한 8국과 불사국의 향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겠다. <표 3>은 『三國史記』신라본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사로국의 대외복속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64) 桓靈之末(146-189)에 韓濊가 강성하였다는 기사를 근거로 婆娑尼師今은 2세기 후반 경에 재위하였으며, 이후 지마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재위기간을 3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하거나(李富五, 「新羅初期 紀年問題에 대한 재고찰」, 『先史와 古代』13, 한국고대학회, 1999, 251쪽.) 파사이사금과 박제상의 혈연관계를 계상하고 『日本書紀』氣長足姬尊 神功皇后의 波沙寐錦과 우로(宇流助富利智干)의 등장 시기를 2주갑 인하여 소국분쟁기사의 기년을 4세기 전반으로 조정하기도 한다.(宣石悅, 「『三國史記』〈新羅本紀〉加耶關係記事의 檢討-初期期錄의 紀年 推定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24집, 부산경남사학회, 1993, 17-18쪽.)

65) 파사이사금 5년 보리줄기가 갈라지거나, 벌휴이사금 3년 상서로운 벼를 바치기도 하였으며, 나해이사금 27년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등 남신현과 관련된 기이한 사건이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대방군에 신설되었던 남신현과의 교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그 위치는 상세하게 전해지지 않는데, 이로 보아 사로국이 새로이 증설한 縣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66) 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520쪽.

67) 다만, 이를 사로국의 일방적인 대외복속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실직곡국은 복속된 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고, 압독국은 파사이사금이 직접 거동하여 구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반란이 일어난다. 따라서 교역을 위한 진한 각국과 사로국의 접촉 양상으로 파악한다.

〈표 3〉 斯盧國의 대외복속 기사(남혜민 2018을 수정)

국명	시기	내용		위치
		本紀	地理志	
肅汗伐國	과사이사금 23년	降	取	안강
悉直谷國(悉直國)	과사이사금 23년	降	降	삼척
	과사이사금 25년	討		
押督國(押梁小國)	과사이사금 23년	降	取	경산
	일성이사금 13년	討		
比只國(不斯國)	과사이사금 29년	并	有名未詳	창녕
多伐國	과사이사금 29년	并	有名未詳	합천 옥전
草八國	과사이사금 29년	并	有名未詳	합천 초계
召文國	벌휴이사금 2년	伐	국명만 등장	의성
浦上八國	나해이사금 14년	救		남해안 일대
甘文國(甘文小國)	조분이사금 2년	討	국명만 등장	김천
	조분이사금	破		
骨伐國(骨火小國)	조분이사금 7년	降	得	영천
沙伐國(沙梁伐國)	침해이사금(昔于老 列傳)	滅	取	상주

사로국의 대외정벌은 肅汗伐國과 悉直谷國, 押督國을 정벌한 후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을 병합한다. 다음으로 召文國, 骨伐國, 沙伐國을 차례로 정벌한다. 이 과정은 동남해안 방면, 낙동강 중류 방면, 경북 내륙(낙동강 상류) 방면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사실에 기반한 사건의 열거로 파악할 수 있다.⁶⁸⁾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속의 표현 방식과 과정이다.

복속의 표현방식은 降, 討, 并, 伐, 滅, 取, 得 등이 사용되었다. 우선 肅汗伐國, 悉直谷國, 押督國의 항복(降) 기사이다.⁶⁹⁾ 이들은 사로국에 항복하였으나 이후 반란이 일어나 재차 정벌(討) 당한 지역이다. 이 소국들은

68) 남혜민, 「三韓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斯盧國」, 『한국고대사연구』 92, 한국고대사학회, 2018, 36쪽.

69)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3年

대체로 높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인근 진한 국가들과 자체적인 교역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낙랑군과의 교역 체계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甘文國의 사례⁷⁰⁾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骨伐國의 항복(降) 기사이다.⁷¹⁾ 골벌국은 자진하여 항복하였으며, 그로 인해 집과 토지를 하사받았다. 이는 사로국(혹은 진한 8국)에 가장 우호적으로 합류한 사례로 여겨진다. 沙伐國은 반란을 일으켜 백제에 귀의하였으며, 이후 昔于老의 공격으로 멸망(滅)한 것으로 나타난다.⁷²⁾ 이는 가장 강력한 응징에 해당한다. 다만, 상주지역은 烏嶺이나 化寧을 통해 중·북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낙랑군과의 교역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比只國·多伐國·草八國의 사례에서 등장하는 병합(并)이다.⁷³⁾ 여기서 등장하는 ‘并’의 경우 항복이나 멸망보다 낮은 단계의 복속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신라 중심의 우열관계를 기반으로 한 『三國史記』의 서술 방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삼한의 소국명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당대의 사정도 일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소국들에 대한 정보가 地理志에는 모두 ‘三國有名未詳地分’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소국들은 대부분 복속 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최소한 국명만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반면, 비지국·다벌국·초팔국은 정벌 기사의 내용만을 전한다. 사로국 尼師今期の 대표적인 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지에 관련된 내용이 부재한 것은 당시 구체적인 실정을 중앙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직접적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비지국과 다벌국, 초팔국이 모두 가야의 일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로국의 일방적인 영역확장과는 대비된다.

따라서 삼한 소국의 존재는 인정되더라도, 당시 사로국에 병합된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에 사로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진한 소국이 낙랑

70) 『三國史記』 卷 第2 新羅本紀 第2 助賁尼師今 2年

71) 『三國史記』 卷 第2 新羅本紀 第2 助賁尼師今 7年

72) 『三國史記』 卷 第45 列傳 第5 昔于老

73)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9年

군으로 이속되었을 때, 不斯國은 이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국에 해당하여 기존의 교역체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창녕 지역에서 마한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이 확인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창녕 계성리 취락유적⁷⁴⁾에서는 삼국시대 수혈건물지 25동이 확인되었다. 특히 재지계와 현저히 다른 방향, 사주식 평면형태와 마한 양식 생활용 토기, 하지키계 토기가 출토되어 마한권-비화가야·북부 九州가 교역을 진행하였던 교역장으로 여겨진다.⁷⁵⁾ 이는 진한 8국의 이속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5세기 전후까지 마한·왜에 대한 포용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교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로국의 낙동강 중류 지역 진출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사로국은 방향을 선회하여 낙동강 상류(경북 내륙)으로 진출을 시도하는데, 그 기점에는 浦上八國戰爭이 놓여있다. 특히 낙동강 중류 지역에 위치하였던 비지국(不斯國), 다벌국, 초팔국이 각기 가야의 여러 나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3.3. 포상팔국전쟁과 불사국의 변천

浦上八國戰爭은 8국이 연합하여 加羅 혹은 阿羅를 공격한 사건으로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모두 등장하는 기사이다. 이는 가야 관련 사료 중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쟁 시기와 배경·경과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포상팔국전쟁을 다루는 기존의 논의는 浦上八國과 安那國, 狗那國, 斯盧國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 이외에도 존재하였던 진·변한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역권 쟁탈로 이해되어 변한 소국들을 중심

74) 우리문화재연구원, 『昌寧 桂城里 遺蹟』, 2008.

75) 정선운, 「考古資料를 통해 본 加耶의 沿岸航路 - 港市國家論을 통해」, 『도서문화』 64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4, 19쪽.

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상팔국전쟁은 진·변한 사회의 총체적인 변동 과정에서 발발한 사건으로, 진한 국가에게 미쳤던 파급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포상팔국전쟁의 전쟁 시기와 원인, 경과에 대해 살펴본 후 불사국의 대응과 향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료에 등장하는 포상팔국전쟁 기사는 다음과 같다.

J-1)14년 가을 7월에 浦上八國이 加羅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昔于老와 伊伐滄 리푼에게 6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라를 구해주라고 명령하였다. 포상팔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三國史記』卷第2 新羅本紀 第2 奈解尼師今 14年 7月)

J-2)당시 八浦上國이 함께 阿羅國을 치기로 하자 阿羅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이 왕손 榛淸으로 하여금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주게 하니 드디어 여덟 나라의 군대를 패배시켰다.(『三國史記』卷第48 列傳 第8 勿稽子)

J-3)제10대 奈解王 즉위 17년 壬辰에 保羅國·古白國·史勿國 등 8국이 힘을 합쳐 변경을 쳐들어왔다. 왕은 태자 榛淸과 장군 一伐 등에게 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과 겨루도록 하니, 8국이 모두 항복하였다.(『三國遺事』卷第5 避隱第八 勿稽子)

J-4)20년 乙未에 骨浦國 등 3국의 왕이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竭火를 공격해 왔다. 왕은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그것을 막자, 3국은 모두 패하였다.(『三國遺事』卷第5 避隱第八 勿稽子)

사료 J-1~4는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또는 阿羅·竭火)를 공격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전쟁은 포상팔국 연합과 6천 명의 포로·신라의 6부 군사가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묘사된다.

포상팔국전쟁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으나, 대체적으로 3세기 설과 3세기 후반~4세기 초반 설로 견해가 좁혀지고 있다. 3세기 설은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수로왕의 사망(199년)으로 인해 구야국 중심의 해상교역권이 약화되었고, 신라의 영토확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낙동강 유역 진출(76)로 보거나 수로 집단이 가야 세력권 내에서 구심체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파악한다.⁷⁷⁾

3세기 후반~4세기 초반 설은 당대에 영남지역에 수반되었던 고고학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한다. 4세기대를 전후하여 토기의 기종·기형 분화가 진행되며, 지역색이 등장하는 것을 일종의 변한 사회 내에 정치적 변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⁷⁸⁾ 한편, 4세기 초반 낙랑군 소멸의 영향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⁷⁹⁾

다만, 3세기 중반 韓國의 신지에게 인수를 부여(G-3)하여 새롭게 부상한 안야국·구야국의 존재와 3세기 중·후반 대성동고분군의 위세로 보아 기년 그대로인 3세기 초반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나아가 포상팔국전쟁의 기사가 사로국의 대외복속을 나타내는 순서상 낙동강 중류 방면(비지국·다벌국·초팔국) 병합(竝) 이후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리영 전투가 일어났던 246년(3세기 중반) 이후 발발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포상팔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견해로는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농경지 확보를 위한 내륙 지역 진출 시도⁸¹⁾나 가락국 중심의 전기가야 세력이 신라를 공격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²⁾

‘浦上八國’의 ‘浦上’은 이들이 모두 강·해안과 밀접히 관련된 국가였음

76) 이종욱,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가야연맹의 전개」, 『서강인문논총』17집,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7, 134-136쪽.

77)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역사와 세계』13집, 부산대학교출판부, 1989, 28-31쪽.

78) 金泰植,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한국사연구』86, 한국사연구회, 1994, 51-54쪽.

79) 김태식, 앞의 책, 2002, 131쪽.

80) 이와 함께 昔于老와 부자관계인 흘해이사금이 107세 가량 장수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三國史記』의 포상팔국전쟁 기록을 1주갑(60년) 인하여 269년을 그 상한으로 보는 견해(백승욱,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2003, 110쪽.)도 주목된다.

81) 남재우, 앞의 책, 2003, 123-124쪽.

82) 허재혁, 「5세기대 남부가야의 세력재편 : 浦上八國 戰爭과 高句麗軍 南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8쪽.

을 시사한다. 또한 8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공격한 것은 8국이 공유하던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배경으로는 3세기 중반의 급격한 변동이 주목된다.

기리영 전투의 결과로 인해 대방군에 소속되어 있던 진한 8국은 낙랑군으로 이속되었다. 이는 해상 교역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였을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1/3가량이 기존의 교역체계에서 이탈하였으며, 곧 해상교역의 불가피한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진한 8국의 낙랑군 이속을 육로 교통로의 재활성화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안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포상팔국의 이익에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형이다. 따라서 포상팔국전쟁은 3세기 중반 기리영 전투의 결과로 진한 8국이 낙랑군으로 이속되어 대방군으로 이어지는 해상교역이 위축되자, 이에 반발한 포상팔국이 대외교역의 우선권을 지니고 있던 안야국, 구야국 등을 공격하여 새로운 해상교역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대상국은 구야국(J-1)과 안라국(J-2), 사로국(J-3-4)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 왕자·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거나(J-1~2), 직접적으로 포로를 동반(J-1)하는 등 구야국과 안야국을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3세기 중·후반에 구야국은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던⁸³⁾ 반면, 안야국은 목곽묘의 축조·부장 양상 등 고고학적으로는 구야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僣呼를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고자료로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안야국이 견지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외교적 역량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이에 진한 8국의 낙랑군 이속으로 인한 교역 체계의 변동은 안야국의 외교적 역량에 타격을 주었고, 안야국은 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포상팔국에게 침입을 당한 안라국은 사로국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

83) 동읍~진영 분지의 철·철기 생산력을 바탕으로 구야국은 대외교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김양훈,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 46호, 부경역사연구소, 2020, 28-30쪽.) 이는 구야국의 군사적 역량과도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84) 채상훈, 「묘제로 본 安邪國과 辰·弁韓에서의 위치」,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172쪽.

하였다. 다만, 구원 요청은 사로국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로국은 近郡과 6부의 군사를 지원하였다.(J-2) 이는 4세기 이후 경주 황오동 385-10번지, 월성로 29호의 승문계타날호 등 함안산 토기가 등장⁸⁵⁾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4세기 전반부터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저소 대형분에서 1세기 가량 함안계 토기가 출토되는 점도 포상팔국전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⁶⁾ 이로 보아 안야국을 구원하였던 다양한 주체를 상정할 수 있으며, 토기 등의 고고자료는 전쟁 이후 이들 소국과 안야국 사이에 활발한 물질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창녕 지역에서 등장하는 4세기 중엽 일리유적의 통형고배, 무과수노형기대, 승석문타날양이부호 등이 함안양식권에 해당되고, 함안 묘사리, 우거리, 황사리 등의 토기가마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⁸⁷⁾에서 불사국도 안야국을 구원한 주체로 상정될 수 있다.

안야국이 포상팔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불사국·사로국을 포함한 소국들의 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 안야국은 중국·왜와의 교역로를 확보하게 된다.⁸⁸⁾ 이와 함께 안야국과 안야국을 구원하였던 소국 사이의 교류가 공고히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불사국도 안야국과의 긴밀한 군사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기존의 진한의 소국에서 탈피하여, 가야의 일국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4세기 이후 영산고분군의 동리지구에서 확인되는 창녕양식 토기를 통해 계성고분군에 고총고분이 조영되기 이전 시기에 이미 창녕양식토기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⁸⁹⁾

나아가 여초리·퇴천리 일대의 대규모 토기가마터는 뛰어난 생산력과

85) 정주희, 「咸安樣式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과 意味」, 『한국고고학보』 73집, 한국고고학회, 2009, 30쪽.

86) 이희준, 『신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2008, 228-231쪽.

87) 하승철, 「4-6세기대 창녕 지역 도질토기의 변천」, 『경남연구』 1, 경남연구원, 2009, 141쪽.

88) 남재우, 「安邪國에서 安羅로의 변천」, 『사람』 58호, 수선사학회, 2016, 159쪽.

89) 홍보식,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비화가야의 전성기를 맞이하다」, 『빛의 나라 비화, 세계유산으로 빛나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24, 52쪽.

노동력을 의미하며, 목곽묘 단계의 유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동리·영산고분군의 축조 세력은 그들의 위세를 뒷받침한다. 이는 『일본서기』 신공기에 등장하는 比自체의 실체로, 불사국이 비사별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맺음말

不斯國은 삼한시기 창녕 지역에 성립하였던 소국이다. 이 글에서는 불사국이 진한의 일원으로 출발하여 어떻게 가야의 일국인 비화가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三國志』의 불사국은 『三國史記』의 比只國과 동일한 정치체이며, 창녕 남부의 영산-계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낙동강 인근의 충적지와 소택지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였으며, 낙동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감물창진, 기음강, 우질포 등의 나루터는 대외 교섭권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

둘째, 3세기 중반 기리영 전투를 위시한 진·변한 사회의 재편에서 불사국은 脫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방군 중심의 수로 교역 체계는 영남 내륙(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진한 소국들의 소외를 야기하였으며, 이들은 자체적인 교역로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新羅本紀의 초기기록인 尼師今期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로국의 대외복속전쟁의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그 중 파사이사금의 比只國·多伐國·草八國 정벌 기사는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불사국의 진한 이탈을 시사한다.

셋째, 불사국은 포상팔국전쟁에서 안야국을 지원함으로써 가야의 일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기리영전투의 결과로 인해 진한 8국이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이속됨에 따라 포상팔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포상팔국은 안야국을 공격함으로써 저항하였지만, 사로국과 불사국 등의 구원을 바탕으로 안야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 4세기 이후

확인되는 여초리·퇴천리 가마터의 함안식 토기는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할 수 있었다. 대외적 위상을 확보한 불사국은 『日本書紀』에 比自倭로 등장하며, 가야의 유력 정치체인 비화가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사국의 변천 과정은 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야라는 기존의 도식적인 해석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단편적인 계승 관계는 개별 소국이 지닌 역량과 주체적인 대응 과정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불사국이 진한의 범주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가야의 길을 택한 사례는 삼한 78개 소국 모두를 도식화하여 이해하려는 시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글이 창녕 지역 정치체의 독자적 위상을 복원하고, 삼한에서 삼국으로 이행하는 여러 소국의 다층적인 면모를 고찰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島嶼文化』36집, 2010.

김남중, 「韓-曹魏 전쟁과 韓 사회의 재편」, 『한국고대사탐구』 37,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김양훈,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 46호, 부경역사연구소, 2020.

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82, 한국고대사학회, 2016.

金廷鶴,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호, 한국사학회, 1983.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金泰植,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한국사연구』86, 한국사연구회, 1994.

김효정, 「창원 다호리의 청동기와 세형동검문화」,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 2021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2022.

남재우, 『安羅國史』, 해안, 2003.

_____, 「기록으로 본 고대 창녕 지역의 정치적 위상」, 『石堂論叢』 5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_____, 「安邪國에서 安羅로의 변천」, 『사림』58호, 수선사학회, 2016.

남혜민, 「三韓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斯盧國」, 『한국고대사연구』92, 한국고대사학회, 2018.

_____, 「변한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안야국」,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都守熙, 『百濟語 研究』, 제이앤씨, 2005.

류창환, 「고고학으로 본 황강유역권 가야」,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IV』, 진인진, 2024.

박선영, 「彌離彌凍國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박천수, 「고고학으로 본 비화가야사의 새로운 접근」,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창녕 영산고분군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창녕군·두류문화재연구원, 2019.

백승욱,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2003.

_____, 「居昌 ‘居烈國’의 형성과 변천」,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_____, 「比斯伐의 공간과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01, 한국고대사학회, 2021.

백승홍,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역사와 세계』13집, 부산대사학

- 회, 1989.
- 심봉근, 「경남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 古資彌凍國 胎動」, 『文物研究』 29,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6.
- 宣石悅, 「《三國史記》〈新羅本紀〉加耶關係記事의 檢討-初期期錄의 紀年 推定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24집, 부산경남사학회, 1993.
- 선석열, 「3세기 후반 辰韓 勢力圈의 變化」, 『가라문화』 13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6.
- _____, 「고대의 양산과 변진접도국」, 『지역과 역사』 48호, 부경역사연구소, 2021.
- 안홍좌, 「辰辰走漕馬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38호, 부경역사연구소, 2016.
- 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신분고국」, 『백제연구』 34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 尹龍九,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85, 國史編纂委員會, 1999.
- 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 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호, 부경역사연구소, 2019.
- _____, 「3세기 안야국 이해의 몇 가지 문제」,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 이동희, 「고 대산만 지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호남고고학보』 67집, 호남고고학회, 2021.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 李富五, 「新羅初期 紀年問題에 대한 재고찰」, 『先史와 古代』 13, 한국고대학회, 1999.
- 李永植, 「고대 한일교섭의 가교, 거제도 - 가야 瀆盧國과 신라의 裳郡」, 『東아시아古代學』 2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 이용현,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 이재현, 「진·변한출토 외래유물의 성격」, 『한국 출토 외래유물 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주요 유물 종합보고서, 2011.
- 이종욱,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가야연맹의 전개」, 『서강인문논총』 17집,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7.
- 이현혜, 『마한·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2022.
- 李熙濬,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 26호, 嶺南考古學會, 2000.
- 이희준, 『신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2008.
- 장승혜, 「삼국시대 창녕 지역의 철제농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2022.
-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 _____,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 전진국, 「고대 창녕 지역의 소국 설정」, 『한국고대사연구』 101, 한국고대사학회, 2021.
- _____, 「진변한 24국의 위치 비정」 『한국상고사학보』 118호, 한국상고사학회, 2022.
- 정선운, 「考古資料를 통해 본 加耶의 沿岸航路 - 港市國家論을 통해」, 『도서문화』 64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4.
- 정주희, 「咸安樣式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과 意味」, 『한국고고학보』 73집, 한국고고학회, 2009.
- 鄭澄元·洪漣植, 「昌寧郡의 새로 찾은 生活遺蹟」, 『역사와 세계』19집, 부산대학교, 1995.
- 주보돈, 「文獻上 으로 본 古代社會 昌寧의 向方」, 『한국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
- _____, 「진한에서 신라로」,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주요 유적 종합보고서Ⅲ, 2011.
- 창녕박물관, 『창녕을 다시 만나다』, 창녕박물관 재개관 전시도록, 2018.
- 창녕군지편찬위원회, 『昌寧郡誌(하)』, 2003.
- 채상훈, 「묘제로 본 安邪國과 辰·弁韓에서의 위치」,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 千寬宇, 「辰·弁韓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호, 백산학회, 1976.
- 천소영, 『한국지명어연구』, 이화문화사, 2003.
- 하승철, 「4-6세기대 창녕 지역 도질토기의 변천」, 『경남연구』1, 경남연구원, 2009.
- 허재혁, 「5세기대 남부가야의 세력재편 : 浦上八國 戰爭과 高句麗軍 南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홍보식,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비화가야의 전성기를 맞이하다」, 『빛의 나라 비화, 세계유산으로 빛나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24.
- 今西龍(橋本繁 譯),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 (3)」, 『신라사학보』 5, 신라사학회, 2005.
- 田中俊明, 「復元多羅國史 文獻からみた多羅國」, 『다라국 그 위상과 역할』, 합천군·경상대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014.
- 鮎貝房之進, 「全北全州及慶南昌寧の古名に就きて」, 『靑丘學叢』 4, 靑丘學會, 1931.

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Chinhan Bulsaguk

Min Gyeong-tae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s the process through which Bulsaguk(不斯國), a small polity of Chinhan, evolved into Bihwa-Gaya(非火伽倻), a constituent state of the Gaya confederacy. Bulsaguk corresponds to Bizi-guk(比只國) recorded in the Samguk Sagi and developed primarily in the Yeongsan and Gyeseong-myeon areas of southern Changnyeong. The Battle of Giryyeong in the mid-third century is closely related with Bulsaguk's separation from Chinhan and corresponds to the pattern of Saro-guk's external subjugation campaigns described in the Samguk Sagi. Unlike the eight Chinhan polities that were administratively transferred from Daebang-gun to Lelang-gun, Bulsaguk was not included in this reorganization and instead pursued an independent trajectory. The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these eight Chinhan polities provided the historical context for the Posangpalkuk War (浦上八國戰爭), during which Bulsaguk supported Anya-guk and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war's outcome. Through this involvement, Bulsaguk secured its position as a constituent state within the Gaya confederacy.

The case of Bulsaguk expos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schematic interpretations that equate Chinhan with Silla and Byeonhan with Gaya. It demonstrates that the autonomous responses of individual small polities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in early state formation than has previously been acknowledged. By restoring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Changnyeong-region po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Samha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the Three Kingdoms period.

Keywords: Chinhan, Bulsaguk, Bizi-guk, Bisabeol, BihwaGaya, Gaya, Giriyoung War, Posangpalkuk War

민경택

소 속: 국립창원대학교

전자우편: mingt19@changwon.ac.kr

논문투고일 2026. 02. 01 / 심사완료일 2026. 03. 10 / 게재결정일 2026. 03. 14